

# 서울 선잠단지 복원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6. 7.



재단법인 서울문화유산연구

Seoul Institute of Cultural Herit



## 1. 머리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에서는 2014년 8월에 【2015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서 사적 제83호인 선잠단지의 복원화 사업을 계획하였고 이를 【2015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성북구청에서는 선잠단지 수목정비, 선잠단지 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선잠단지 홍살문 긴급보수의 사업내용으로 진행하였으나 매장문화재, 유구 현황 등을 파악하여 선잠단지 복원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선잠단지 내 매장문화재 발굴(시굴)조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선잠단지의 매장문화재 및 유구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굴(시굴)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변경승인을 득하였다.<sup>1)</sup> 이에 성북구청에서는 본원에 발굴(시굴)조사를 의뢰하였다.

발굴(시굴)조사는 2016년 6월 28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대상지 면적 1,147㎡에 대하여 허가(제2016-0874호)<sup>2)</sup>를 받아 2016년 7월 7일부터 동년 동월 11일까지 실작업일수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본 조사의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조 사 단 장 : 김 한 상 (서울문화유산연구원 원장)
- 책 임 조 사 원 : 박 준 범 (서울문화유산연구원 부원장)
- 조 사 원 : 김 영 (서울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 준 조 사 원 : 양 보 라 (서울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 보 조 원 : 김 지 혜 (서울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1) 문화재청 보존정책과-2736(2016.04.26.)

2) 문화재청 발굴제도과-8108(2016.06.28.)

## II. 자연환경 및 고고배경

### 1. 자연 지리적 환경<sup>3)</sup>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리적 위치는 동쪽 경계가 강동구 상일동으로 북위 37°2'56"~725, 동경 127°1'06"~475, 서쪽 경계가 강서구 오곡동으로 북위 37°3'15"~884, 동경 126°5'55"~137로 동서간 거리가 36.78km이다. 서울시의 남쪽 경계는 서초구 원지동으로 북위 37°0'32"~301, 동경 127°3'25"~222 북쪽 경계는 도봉동으로 북위 37°1'55"~237, 동경 127°1'03"~071로 남북간 거리는 30.3km이다. 서쪽으로는 인천시와 부천시와 인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수원시와 성남시가 위치하며, 북동쪽은 하남시와 남양주시, 그리고 의정부시와 연결한다. 북서쪽은 김포시와 고양시가 인접하고 있다.

지금의 서울역에서 도성안 시가로 들어가는 길에 송례문이 서 있다. 이 대문이 서 있는 곳은 표고 36.6m의 소구릉(小丘陵)으로서, 서울시를 남서사면(南西斜面)의 용산·서대문방면과 북동사면(北東斜面)의 종로·을지로방면을 가르는 분수령이 된다. 이 송례문 구릉은 보다 높은 동남쪽의 목멱산과 서북쪽의 안산(296m)·인왕산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작은 산맥을 이룬다. 이 산맥을 경계로 지질적으로 서남부는 화강편마암지(花崗片麻巖地)이고, 동남부는 대체로 화강암지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의 북쪽에 높이 솟은 삼각산(836m)은 서울의 진산(鎭山)으로 일명 북한산·화산이라고도 한다. 삼각산의 이름은 화강암으로 된 700m이상의 세 봉우리 즉 백운대·인수봉·만경대에서 유래된다. 이 산은 중생대말에 관입(貫入)된 것으로 보이는 연분홍색의 화강암으로 여러 곳에 절벽과 기봉(奇峰)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 중심가 남쪽에 솟아 있는 남산(목멱산)은 지질·지형학적으로 볼 때 준평원상(準平原上)의 편마암으로 된 잔구(殘丘)라 하겠다. 서울 분지의 남쪽을 막으며, 좌우의 능선을 끼고 도는 성곽의 남쪽 중심지가 된다.

서울은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기후에 있어서도 중간적인 점이(漸移)기후를 이룬다. 즉 제주도와 남해안이 난대성기후, 개마고원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방이 냉대성 기후를 이루는데 대하여, 서울은 그 중간적인 성격의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은 지형적으로 겨울철의 편서풍 등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같은 위도의 타지역에 비해 기온의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를 이루며, 특히 겨울 기온은 동해안보다 2~3℃나 낮은 기온을 이룬다. 한편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여름에는 열대기후에 못지 않은 고온이 나타나고, 한랭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 겨울에는 한랭기후와 유사한 저온이 나타나는 점에서는 한반도 기후와 맥을 같이 한다. 강수량에 있어서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 기간 장마계(季)가 나타나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우계가 형성되고 때에 따라서 태풍의 영향도 있어 수해를 입기도 한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1994. 『종로구지(상권)』, 43~68쪽.

한강유역은 주변지역에 비하여 기온차가 비교적 심한 편으로 주간에는 1.3℃ 낮고, 야간에는 0.8℃ 높다.

서울지역의 강수량은 연평균 1,369.8mm로서 한강 중상류 다우(多雨)지역의 분지형 다우지에 속하며,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겨울철의 건계(乾季)와 장마전선의 북상에 따라 형성되는 여름철의 우계(雨季) 간의 구별이 뚜렷하다. 강수는 여름철에 집중하여 6~9월 사이의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67.8%에 이른다. 특히 북태평양으로부터 많은 수증기가 공급되거나 열대 지방의 고온다습한 북서기류인 장마전선이 유입될 때에는 일강수량 10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내리기도 한다. 서울의 연평균 습도는 65%이며, 평균기온은 영상 11.8℃로서 전형적인 온대기후지역이다.

성북구는 서울의 북동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 중 비교적 새로운 구의 하나이다. 1943년 경성부제(京城府制) 개편으로 동대문구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가 1949년 성북구가 분리 신설되었고 1973년에는 성북구에서 도봉구가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성북구의 동쪽은 종량천을 경계로 종량구와 인접해 있으며, 남쪽은 신설동 로터리에서 종로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북쪽은 북한산의 여러 성문들 중의 하나인 정릉동의 보국문(輔國門) 지역이다. 성북구의 남서지역은 한성대학교 뒤편에서 삼청터널까지 이어지는 옛 성벽을 경계로 종로구와 인접해 있으며, 북서지역은 북한산의 주능선을 따라 종로구, 경기도 고양시, 강북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북동지역에는 우이천(牛耳川)을 경계로 노원구와 인접해 있다.

성북구의 지질은 주로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화강암은 우리나라 최대의 지각변동이라고 할 수 있는 중생대 쥐라기의 대보조산운동에 의해 형성된 대보화강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화강편마암과 호상편마암 등이 국지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지역 즉, 정릉천·종량천·안암천 등 하천 연안에서는 국지적으로 충적층이 분포하고 있다.

성북구는 도심과 서울 동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지역이며, 북한산 국립공원 및 대학 10개소가 위치하고 구면적의 70%가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다. 성북구의 면적은 24.57km<sup>2</sup>로서 서울특별시 전체면적의 4.05%에 불과하다<sup>4)</sup>.

## 2. 고고·역사적 배경<sup>5)</sup>

### 1) 고고학적 배경

성북지역 일대는 정릉천·안암천·우이천을 끼고 북한산 줄기의 동남쪽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배산임수의 생활터전을 바탕으로 성북지역 일대는 선사시대 이래 오늘날까지 주거공간으로 자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성북구지역은 넓은 의미에서 한강변 서울유역의 일부라는 지리적 여건을 가지며 한강변 선사문화권에 포함되는 일반 생활문화권이라는 개연성이

4) 성북구청(<http://www.seongbuk.go.kr/>)

5) 서울특별시 성북구, 1993, 『성북구지』, 53~177쪽.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 2006, 『문화유적분포지도』 서울특별시(강북편), 31~38쪽.

있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성북구지역 일대에서 구석기·신석기·청동기의 문화유적이 발굴되지 않았지만 강동구 암사동 선사주거지, 송파구 가락동유적 등 한강변 선사문화유적을 통해 보다 넓은 한강유역문화권에 성북구지역을 포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즉, 성북구지역의 선사시대 이래 고대의 역사적 발자취는 성북구지역의 독자적인 범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한강변 서울유적이라는 보다 넓은 자연지리적 여건 속에서 전개된 동질의 문화를 공통으로 영위한 일반적인 생활터전을 바탕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에서 확인한 선사시대의 유적은 대부분 한강변과 그 지류인 중랑천·성내천·탄천·양재천 가까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신석기시대 이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적지로 암사동, 가락동, 역삼동 유적이 있다.

강동구 암사동 한강변의 유적에서는 20여 개의 집터가 확인되었고 빗살무늬토기 몇 점과 돌도끼, 돌화살촉, 그물추 등의 석기가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발굴 결과 이 유적은 B.C.6세기 경부터 4세기에 이르기까지 신석기인들이 움집을 짓고 생활하였던 신석기시대 대표적인 유적지로서, 부근의 미사리 유적과 함께 한반도 중부의 선사문화 성격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암사동 선사유적을 통하여 우리는 출입시설, 화덕, 그리고 저장시설과 기둥 구멍 등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송파구 가락동유적은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이다. 가락동유적의 집터는 장방형의 반 지하식이며 다수의 토기류와 약간의 석기류가 이 곳에서 출토되었다. 가락동유적에서 나온 심발형(深鉢形) 토기와 단지형 토기는 서울의 역삼동유적, 경기도 여주 혼암리유적 등 한강이남 중부지방에 분포하고 있어 학계에서는 이러한 토기 유형을 ‘가락식 토기(可樂式 土器)’라고 부르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 발견된 석기류 중 돌낫이 있다는 것은 이곳의 선사인들이 주로 농경생활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남구 역삼동유적도 청동기 시대 유적지로서 이곳의 집터는 한강에서 약 3km 떨어진 지점의 야산 비탈면에 제법 큰 장방형의 움집을 짓고 살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곳에서는 낫 모양의 돌칼, 숫돌, 돌화살촉, 가락바퀴와 함께 화분모양의 토기들이 다수 발굴되었다.

서울일원의 청동기 문화 역시 같은 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신석기 문화와의 연계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가락식 토기’로 대표되는 한강 하류유역의 무문토기와 역삼동의 대형 주거지, 그리고 고인들은 이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청동기시대 역시 한강을 따라 발달하였으며, 특히 역삼동의 대형 주거지를 통해 이 지역의 취락 발생과 사회발전의 규모를 엿볼 수 있다.

## 2) 역사적 배경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한강 유역을 둘러싸고 치열한 전쟁을 전개하였다. 475년 장수왕은 백제를 공격하여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 한강을 넘어 죽령·조령까지 진출하여 백제의 세력을 남쪽으로 몰아냈다. 고구려는 한강 일대에 ‘북한산주(北漢山州)’를 설치하고 지금의 서울 지역을 ‘남평양성(南平壤城)’이라 이름하여 77년간을 통치하였다. 남진정책을 펴는 고구려에 대항

하여 백제와 신라는 서로 동맹을 맺고 551년 고구려군을 몰아냈다. 이때 백제는 한강 하류지역을 장악하여 옛 수도 한성을 되찾았고 신라는 한강 중·상류지역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2년 뒤 신라는 백제와의 동맹을 깨고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하류지역을 점령하고 그곳에 ‘신주(新州)’를 두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한 신라는 군사적, 경제적인 면에서 우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적극적인 교섭을 시작하여 이후 백년간 계속된 통일전쟁에서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차지하고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685년에 지방행정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전국을 9주로 나누고 5소경을 두었다. 이때 현재의 성북구가 포함되어 있던 서울은 9주 가운데 지금의 서울, 경기도, 충청북도, 황해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산주(漢山州)’에 편입되었다. 한산주의 중심지는 지금의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광주에 두었다. 757년 경덕왕 때에는 한산주라는 이름을 ‘한주(漢州)’로 고침과 동시에 서울 지역을 ‘한양군(漢陽郡)’으로 하여 군을 둠으로써 태수를 지방관으로 파견하여 다스리게 했다. 이후 한양군은 후삼국시대 혼란기에 궁예가 세운 태봉국의 땅이 되었다가 그 뒤를 이은 왕건에 의해 고려 땅이 되었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뒤 940년에 전국의 행정구역이 다시 편성되면서 통일신라 때 한양군이었던 서울 지방은 양주(楊州)로 바뀌었고, 1068년 문종은 서울 지역을 남경(南京)으로 삼아 새로 궁전을 짓고 부근의 백성들을 옮겨 살게 하였다. 수도인 중경(中京) 개경에 버금가는 도시로 동경(東京) 경주, 서경(西京) 평양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3경 가운데 하나로 승격된 것이다. 이후 남경은 곧 폐지되고 서울은 양주로 격하되었다가 11세기 말 숙종 때 다시 남경으로 승격되었다. 원 간섭기인 1308년, 충선왕의 왕권강화책에 의해 남경은 다시 ‘한양부(漢陽府)’로 이름이 바뀌어 격하되었다. 1390년 공양왕 때 한양에 궁궐을 새로 짓게 하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다. 그러나 한양 궁궐에 있던 공양왕은 반년도 채 머무르지 못하고 이듬해 2월 개경으로 돌아갔다.

1392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왕위에 오른 그 다음달에 한양으로 도읍을 옮길 것을 명했으며, 1394년 8월 마침내 한양으로 도읍을 정했다. 1395년 6월에는 한양부를 ‘한성부(漢城府)’로 이름을 고쳤다. 1399년 정종 때부터 1405년 태종 초까지 잠시 개성으로 도읍을 옮긴 것을 제외하면, 한성부는 조선시대 내내 수도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다.

1910년 8월 한국의 통치권은 일본이 장악하게 되었다. 국권이 완전히 일본에 넘어가면서 통감부는 조선총독부로 탈바꿈했고, 한성부는 경기도 ‘경성부(京城府)’로 바뀌었다. 1911년에는 행정편제가 바뀌어 경성부를 5부 8면으로 구획하였다. 도성 안과 도성 밖의 일부가 동·서·남·북·중부 등 5부로 나뉘고 성밖의 지역이 용산면, 연희면 등 8개 면으로 나뉘었다. 당시 면적은 약 250km<sup>2</sup>였다. 1914년에는 행정구역의 변화가 있어 5부 8면제가 폐지되고 서울은 186개의 동(洞), 정(町), 통(通), 정목(丁目)으로 나뉘었다. 이와 함께 경성부의 외곽지역이 고양군으로 편입되어 면적은 약 38km<sup>2</sup>로 줄어들었다. 이로 말미암아 서울의 범위는 도성 안쪽과 남쪽의 용산을 포함한 한강 이북으로 정해졌다. 1936년 경기도 고양군, 시흥군, 김포군 관내 지역들이 대거 경성부로 편입되면서 다시 총면적은 약 140km<sup>2</sup>가 되었다.

1943년 6월 10일 구제를 실시하였는데, 종전의 4개(용산, 동부, 서부, 영등포) 출장소를 폐

지, 동부출장소 관내를 동대문구와 성동구로 그 외를 각각 용산구, 서대문구, 영등포구로 하였으며 도성내에 종로구와 중구를 신설하여 모두 7개구로 하였다. 이때 성북지역(경성부에 편입된 지역)은 동대문구에 속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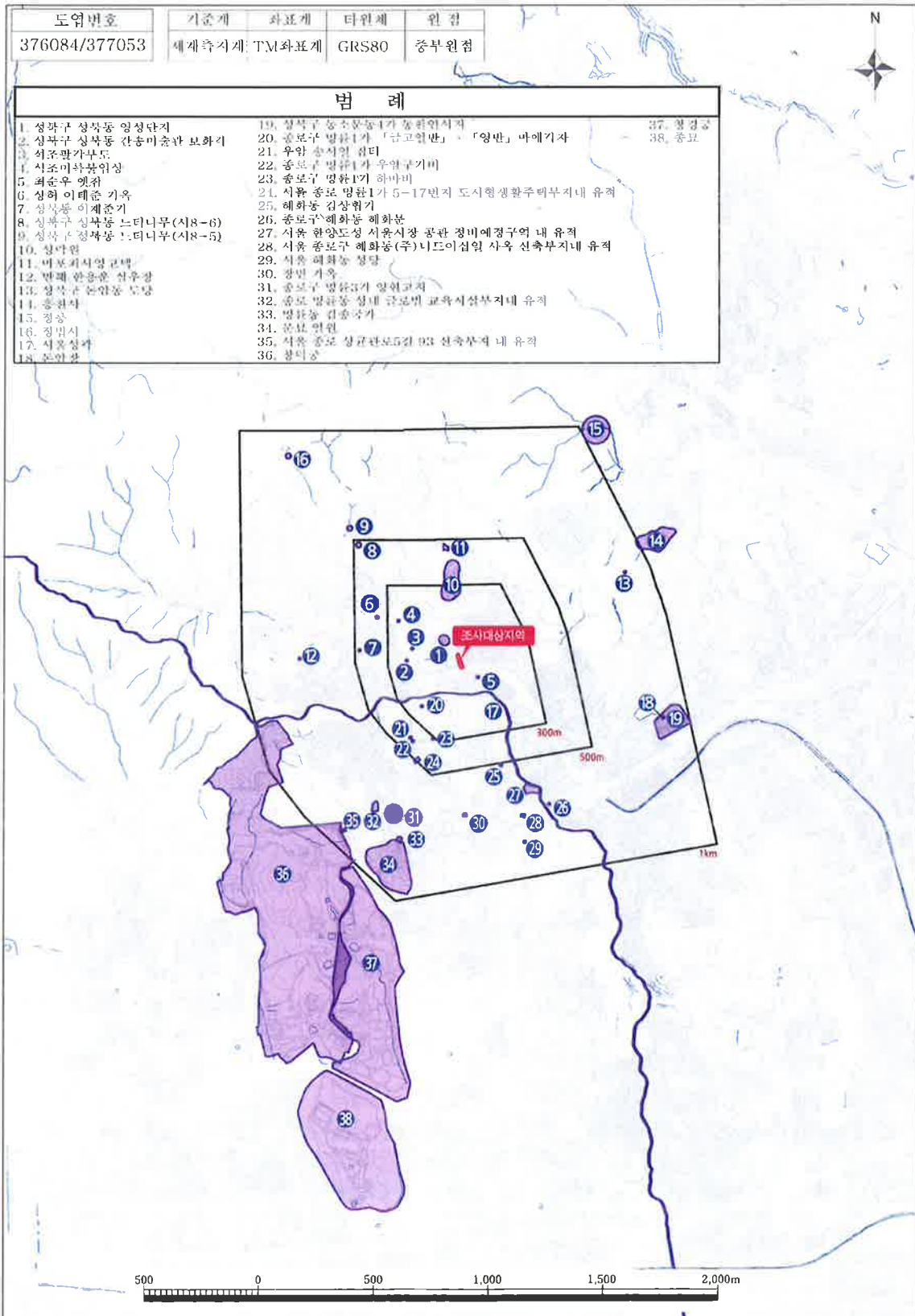
1945년 해방이 되자 한 달 뒤 서울은 '서울'로 공식 명칭을 부여받았다. 해방된 지 꼭 1년 만인 1946년 8월 15일 경성부는 경기도 관할 하에서 벗어나 '서울시'로 다시 태어났으며, 얼마 후 예정의 정, 정목 등으로 불리던 이름도 동으로 바뀌었다. 다시 3년 뒤 1949년 8월 15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로 승격되어 수도 서울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광복 당시 서울의 면적은 134km<sup>2</sup>, 둘레는 63km에 달했으며 8개 구에 268개의 동이 있었다. 그 후 1949년 성북구가 신설되고 동으로는 고양군의 독성 면목동 일대, 서로는 불광리, 응암리 일대가, 남으로는 시흥군 일부, 북으로는 수유리, 길음리 일대가 편입되어 268km<sup>2</sup>로 넓어져서 예전의 두 배로 늘어났다.

1962년 11월 21일자로 공포된 법률 제 1172호는 서울시의 행정구역을 확장하여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전역을 성북구에 편입하고 동군 구리면중 5개리를 동대문구에 편입한다. 성북구의 면적은 종전까지의 45.79km<sup>2</sup>에서 배가 넘는 106.49km<sup>2</sup>로 확장된다. 이 확장으로 성북구의 면적은 당시 서울시 전체면적의 19.6%를 차지하는 큰 구가 되었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인 1973년 3월 12일자 대통령령 제 6548호로 그해 7월 1일부터 도봉구가 새로이 탄생, 성북구의 관할구역이 크게 축소된다. 즉 이때 도봉구가 창설됨으로서 성북구의 면적은 종전의 106.49km<sup>2</sup>에서 23.37km<sup>2</sup>로 축소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도 약간씩의 관할구역 조정이 있었으며 현재 성북구의 면적은 24.57km<sup>2</sup>이다. 이후 많은 행정구역 개편을 거쳐 1988년 5월 구 단위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제도화됨에 따라 성북구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30개 행정동으로 관할되어 오다가, 2007년 10월 12일 조례 제698호에 의해 20개 동으로 통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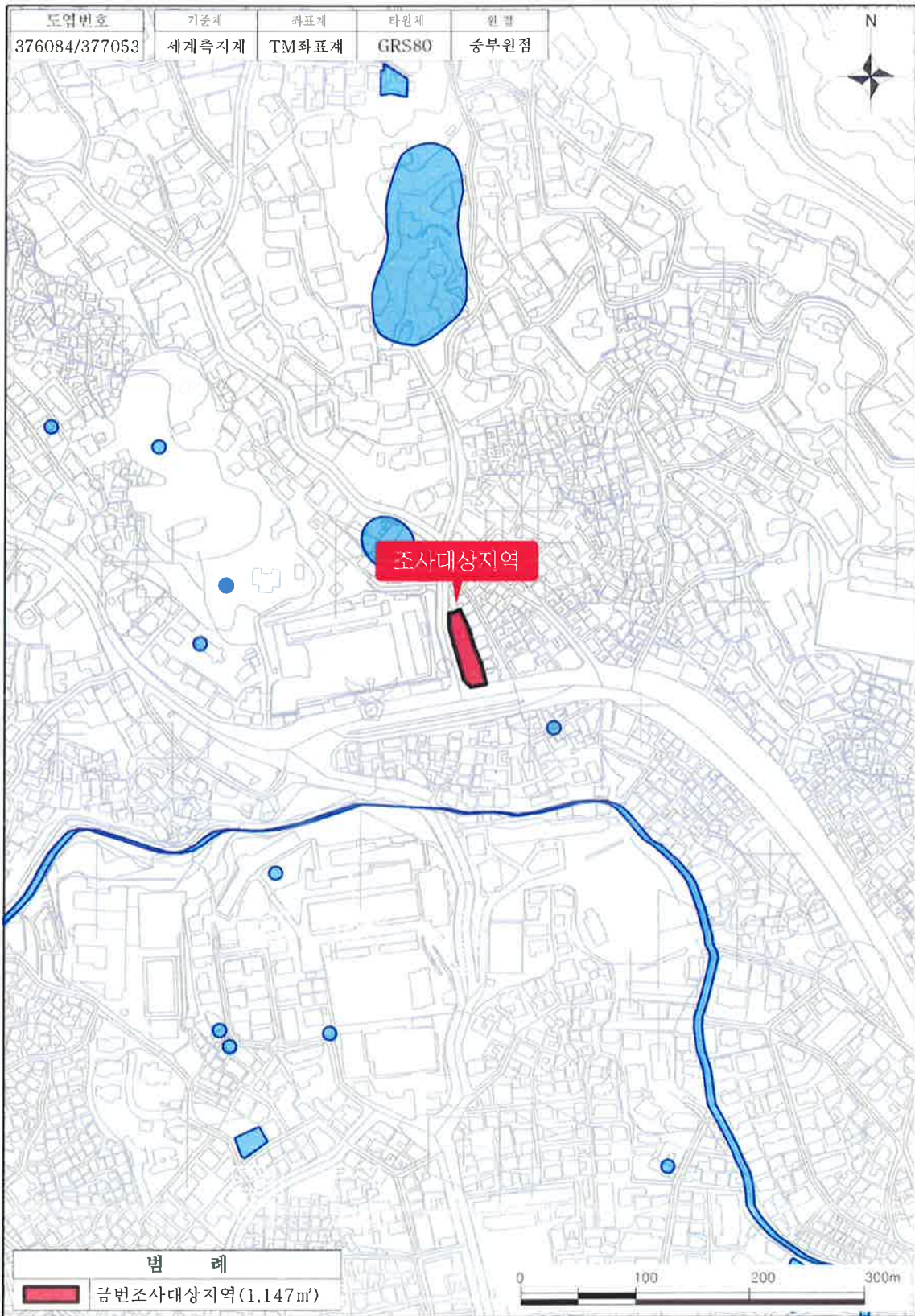
조사지역인 성북동은 북쪽에 북한산이 있고, 서울 성곽이 부채꼴 모양으로 동네를 감싸고 있다. 조선시대 도성 수비를 담당했던 어영청(御營廳)의 북둔(北屯)이 설치되었고, 이 마을이 도성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 초부터 한성부(漢城府)에 속했으며, 갑오개혁 때 한성부 동서(東署) 송신방(崇信坊) 동소문외계(東小門外契) 성북동이라 하였다. 1911년 경기도 경성부(京城府) 송신면(崇信面) 성북동이었고, 1914년 경성부를 축소하면서 고양군 송인면(崇仁面) 성북리(城北里)로 되었다. 1936년 성북정(城北町)으로 되었다가 1943년 구제를 처음 실시할 때 동대문구에 속하였다. 1946년 일제식 동명을 고치면서 성북동으로 바뀌었고, 1949년 성북구 관할로 되었다.



【지도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현황도(1:25,000)





【지도 2】 조사대상지 및 주변유적 위치도(1:5,000)

### III. 조사내용

#### 1. 조사범위 및 방법

금번 조사대상지인 서울 선잠단지 유적은 1963년 1월 21일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 83호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호, 관리되어 오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울 성북구 성북동 64-1번지 일원에 해당한다. 현재 선잠단지의 서편으로는 성북초등학교 사이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북편과 남편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다.

선잠단지 내부는 북편으로 제단이 복원되어 있으며, 제단보호를 위한 보호펜스가 둘러져 있으며, 입구에서 제단으로 가는 부분으로는 뽕나무가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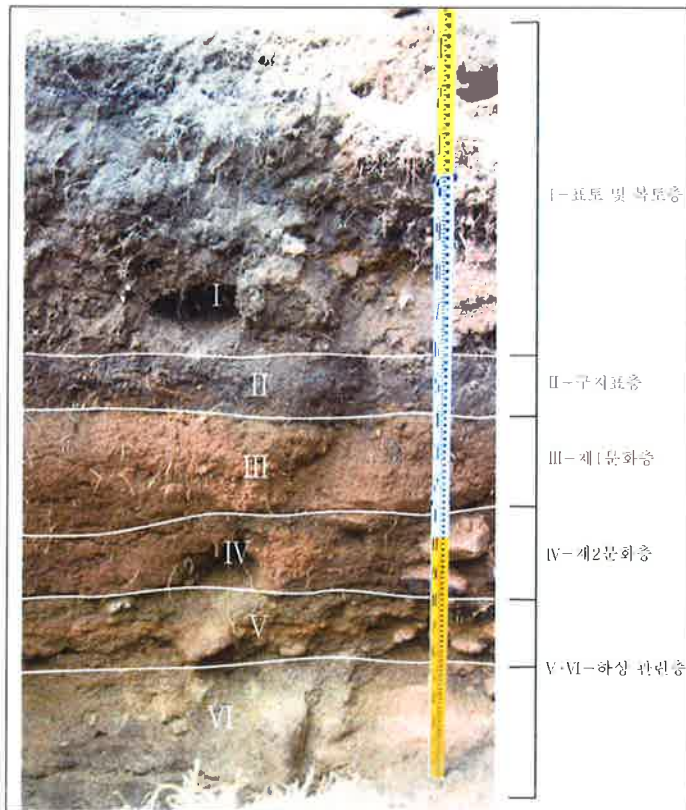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금번 시굴조사는 북편 제단의 보호펜스 외곽부로 3개, 경내의 뽕나무 사이에 6개 등 총 9개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도면 ? 참조).



【사진 1】 조사대상지역 위성사진(서울특별시 항공사진서비스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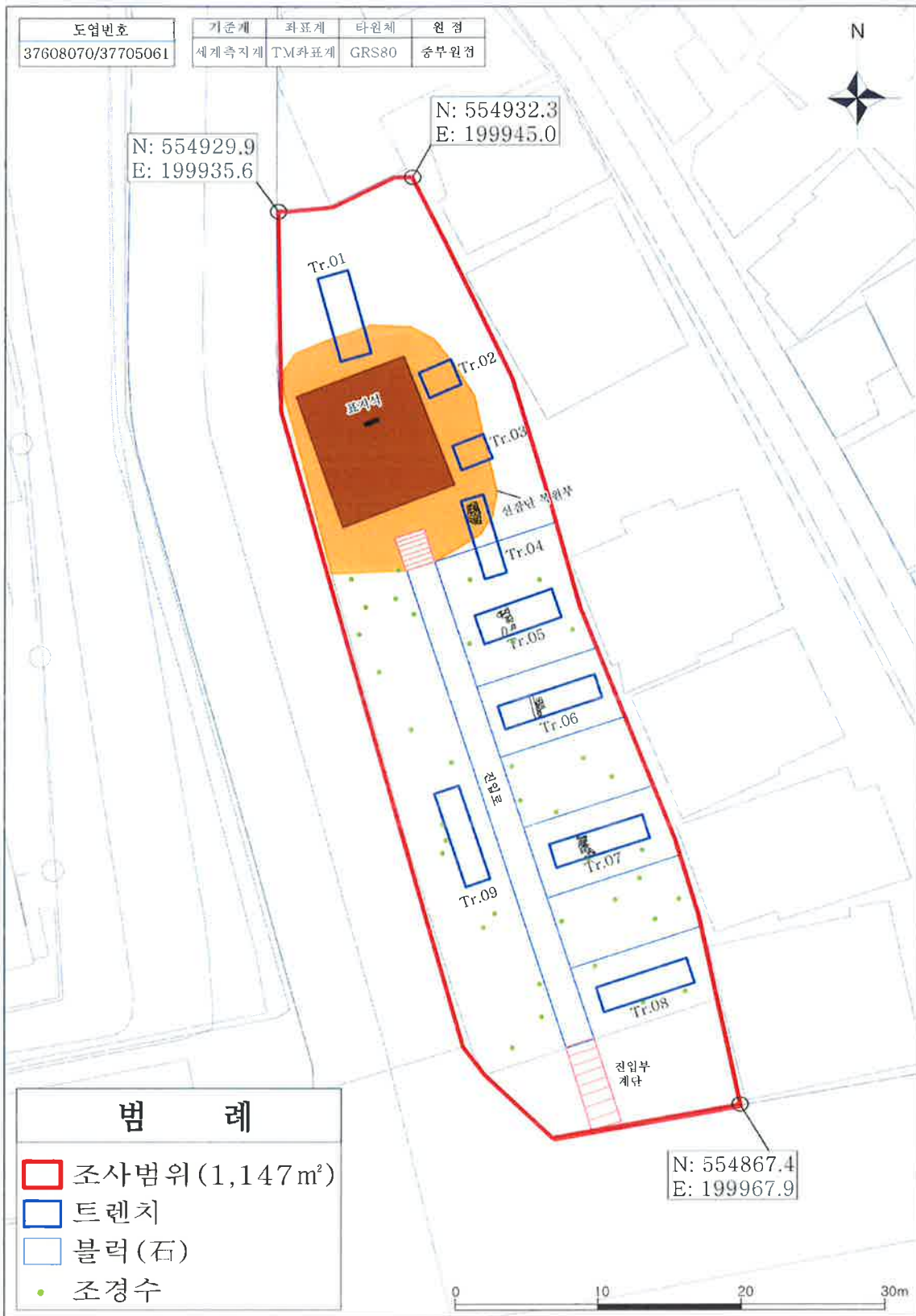
【그림 1】 선잠단지 현황



【그림 2】 표준토층도(5트렌치 북벽)

## 2. 층위

조사지역의 층위는 크게 5개 층으로 구분된다. I층은 복토 및 교란층으로서 사적 정비과정에서 형성된 층에 해당한다. II층은 구지표층으로서 흑갈색 사질점토로 이루어져 있다. III층은 황갈색 사질점토층으로 이루어진 제1문화층으로서 일제강점기 까지 남아 있던 선잠단 유구가 형성되어 있는 층에 해당한다. IV층은 제2문화층으로서 선잠단 이전 시기의 유구가 형성되어 있는 층이다. V층은 황백색 모래층, VI층은 역석이 다량 포함된 모래층으로서 두 층 모두 하상관련층으로 판단된다.



【도면 1】 트렌치 배치도

### 3. 조사내용

#### 1) 1~3트렌치

선장단 북편에 위치한 복원 제단 보호펜스의 외곽부에 해당한다. 외곽 북단으로 1개(1트렌치), 외곽 동단으로 2개(2, 3트렌치)를 설치하였다. 조사결과, 이 부분의 경우는 상부가 대부분 교란되어 교란층 아래에서 바로 생토층이 확인되었다. 트렌치 내에서 확인되는 유구는 없었다.

#### 2) 4트렌치

선장단 북편 복원 제단 보호펜스 외곽부의 남단에 설치하였다. 조사결과, 고위부에 해당하는 트렌치의 북단으로는 복토층 아래로 구지표층이 일부 확인되고, 그 아래에서 할석으로 이루어진 석열이 확인되었다. 석열은 크게 3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앙부에 비교적 큰 대형할석을 종향으로 놓은 후 양쪽은 이보다 다소 작은 할석을 횡향으로 놓으면서 외곽면을 맞춘 형태이다. 제단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석열 남쪽 부분은 후대 교란으로 석열이 이미 파괴, 소실된 상태였는데, 본 트렌치의 남단에 설치한 5트렌치에서 확인되는 석열과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석열 주변과 석열 사이에서 기와편 일부가 함께 검출되었다.



【사진 2】 4트렌치 확인 석열

### 3) 5~8트렌치

선장단 북편 복원 제단과 입구부 사이에 해당하는 공간으로서 입구부터 제단까지 이어지는 보행로의 동편에 설치한 트렌치들에 해당한다. 이 중 석열이 확인되는 트렌치는 5~7트렌치이다. 먼저 5트렌치의 경우는 구지표층 아래에서 바로 석열이 확인되는데, 석열은 상하단으로 단을 지어 크기가 다른 할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단의 경우는 대형의 할석을 횡향과 종향으로 섞어 동쪽 면을 맞추어 놓여져 있으며, 하단의 경우는 이보다 작은 할석을 사용하여 횡향으로 놓여져 있는 형태이다. 5트렌치에서는 석열 이외에도 석열 동편으로 비교적 대형의 방형 수혈 1기가 확인되었다.



【사진 3】 5트렌치 확인 석열

6트렌치의 경우는 후대 교란토층 아래에서 석열이 확인된다. 4. 5트렌치에서 확인되는 석열과는 달리 동쪽 면을 장대석으로 면을 맞추어 열을 만들고 있으며, 장대석의 서측은 작은 할석으로 채워 놓은 듯한 양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7트렌치 역시 후대 교란토층 아래에서 석열이 확인된다. 석열의 석편에서 동편으로 가면 서 약간 단을 지는 형태이며, 할석들이 다소 무질서하게 놓여져 있는 형태로 확인되었다.

8트렌치의 경우는 4~7트렌치에서 확인되는 석열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바닥에서 원형의 수혈 1기가 검출되었다.



【사진 4】 6트렌치 확인 석열



【사진 5】 7트렌치 확인 석열

#### 4) 9트렌치

선잠단 중앙 보행로의 서편에 설치하였다. 지표에서부터 여타 트렌치에서 석열 등의 유구가 확인되는 제1문화층까지 복토가 이루어져 있었다. 제1문화층에서 확인되는 유구는 없었으나 탐색트렌치 아래 생토층에서 소형의 원형 소공 1기가 검출되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4~7트렌치에서 확인되는 석열의 경우는 위치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제강점기 당시의 사진 및 지적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선잠단의 중단 및 하단의 동쪽 옆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5트렌치의 경우는 유구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 토층 조사를 위한 탐색 트렌치를 설치하여 토층을 조사해 본 결과, 상기의 유구가 조성되어 있는 제1문화층 아래로 또 하나의 문화층이 확인되며, 이 층에서 유구 일부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기존 선잠단지 이전의 선대 유구가 조성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6】 5트렌치 제2문화층 확인 추정유구

【표 1】 시굴조사 트렌치 현황표

면적	트렌치번호	규모(m) (폭×길이)	유적 존부여부
1,147㎡	Tr. 1	2.2 × 6.0	無
	Tr. 2	1.9 × 2.4	無
	Tr. 3	1.8 × 2.3	無
	Tr. 4	1.6 × 5.7	석열 1기
	Tr. 5	2.1 × 5.7	석열 1기, 수혈유구 1기
	Tr. 6	1.7 × 7.1	석열 1기
	Tr. 7	1.7 × 6.8	석열 1기
	Tr. 8	1.8 × 6.6	수혈 1기
	Tr. 9	1.8 × 6.8	소공 1기



## IV. 조사결과

1. 이번 시굴조사는 사적 제83호인 서울 선잠단지의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조사면적은 1,147㎡이다.

2. 총 9개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3. 조사대상지의 층위는 복토 및 교란층(Ⅰ층)-구지표층(Ⅱ층)-제1문화층(Ⅲ층)-제2문화층(Ⅳ층)-하상관련층(Ⅴ, Ⅵ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4. 조사결과, 4~7트렌치에서 선잠단지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석열이 검출되었는데, 선잠단지의 중단 및 하단의 동쪽 열로 판단된다.

5. 추가적으로 이번 조사대상지로는 선잠단지 이전 시기에 층을 달리하면서 유적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6. 따라서 이러한 조사결과 및 학술자문회의 의견에 따라 정확한 선잠단지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서 전체 면적(1,147㎡)에 대해서는 정밀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7】 1트렌치 전경



【사진 8】 2트렌치 전경



【사진 9】 3트렌치 전경



【사진 10】 4트렌치 전경



【사진 11】 5트렌치 전경



【사진 12】 6트렌치 전경



【사진 13】 7트렌치 전경



【사진 14】 8트렌치 전경



【사진 15】 9트렌치 전경



【사진 16】 학술자문회의의 광경